

기존 동원기화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특대전통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  
대원동주물기화 ☎(02)739-8745/735-2344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원집 /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주)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학·현대학·세계학

**금주의 법구**  
 항상 남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아난본별경>

**법회 안내**

- 국학정사 (02)814-9670
- 신종기도 매월 1~2일(음)  
인동법회 매월 7일(음)  
지장대일 매월 18일(음)  
관음대일 매월 24일(음)  
관음대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금선사 (02)885-4165
- 신종기도 매월 1~3일(음)  
인동기도 매월 13일(음)  
관음대일 매월 24일(음)  
심우회거사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1시
- 봉인심인당 (02)833-7048
- 일만법회 수·일 오전10시
- 대전 영선사 (042)523-0813
-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대불전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거사법회 첫째 일 오후6시
- 부산 금어암 (051)555-0072
- 초하루법회 1일 오전10시30분  
보통법회 15일 오전10시30분
- 낙신사도교당 (0336)671-4167
-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안양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원 실상사 (0671)34-3031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학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진주 월경사 (0531)6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안신도법회 3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첫째 토 오후8시  
합창단법회 15일 오전10시  
출천 수타사 (0336)33-6611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일 오후3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  
4162) 팩스(737-0698)로 연락  
바랍니다.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8면

## 사찰 환경 “오염 주의보”

행락철 앞두고 비상...도량 지키기 사부대중 동참을  
 관람객 대상 홍보 필요...통도·해인·송광사 수질악화

계간 '다보' 13호 대책 연구논문 발표

성경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산동사찰에 오염방지 비상이  
 걸렸다.  
 국·도립공원내 관광사찰과  
 전통사찰이 행락객이 몰려드는  
 봄철을 앞두고 환경보전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간 산  
 동사찰이 행락객들로 인한 환  
 경오염에 불살을 알아 왔던 것  
 을 감안 이제 사찰이 직접 정  
 정도량 지키기에 나설 해비를  
 하고 있는 것.  
 4월과 5월 주말과 휴일이면  
 5만여 행락객이 몰리는 계룡산  
 동학사는 지난 해부터 오염으  
 로부터의 도량지킴이에 적극성  
 을 보여 온 대표적 사찰이다.  
 동학사측은 경내 계곡에 흙입  
 금지 깎말을 설치하고 스님들  
 이 직접 출입과 화사행위 고성  
 방가등을 하고 있다.  
 또 강한 직지사는 경내 청소  
 원 2명을 고용, 매일 관람객이  
 버리고간 오물을 수거하고 있  
 다. 수거된 오물은 김천시청이  
 이틀에 한번씩 차량으로 수거,  
 하차장으로 옮기고 있다. 수거  
 사의 경우는 배달 운항과 면사  
 무소와 사찰이 경내에서 환경  
 보호, 청정도량 가꾸기 캠페인  
 을 벌여 깨끗한 도량을 유지하

고 있으며 캠페인을 더욱 확산  
 화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환경보호 운동은 전  
 국의 사찰에서 전개되고 있지  
 만 아직 행락객의 환경보호에  
 대한 무관심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게 사찰측의 얘기다.  
 반면 사찰순례를 다니는 각  
 신행단체는 사찰환경보호에 적  
 극성을 보이고 있다. 조계사  
 대승불자회는 매일 한차례씩  
 사찰순례 구도법회를 갖고 있  
 다. 사찰 순례시 미리 준비해  
 간 쓰레기 봉투에 오물을 수거  
 해 소각함으로써 사찰 환경보  
 호에 앞장서고 있다.  
 산동 사찰에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고 주변 관공지역에  
 내에 따라 순례가 좌우된다는  
 것이 불교환경 연구자들의 의견  
 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찰이  
 직접 경내와 주변 관공지역에  
 안내관과 인력을 배치 오물수거  
 등을 맡아야 한다는 것.  
 환경보호 실천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각  
 종은 '실상장 국토청정' 운동의  
 폭을 연차적으로 넓혀가고 있  
 으며 공해추방운동불교인도일  
 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불자  
 10대 실천지침' 등을 내놓아 청



◇ 국보 제284호로 지정된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62, 170, 463.

정환경 가꾸기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찰환경의 오  
 염실태는 심각한 상태. 최근  
 발간된 계간 '다보' 13호에 기  
 고된 '사찰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연구(이병인, 이영경)'에  
 따르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주요 사찰은 먹는 물까지  
 수질악화가 기준치를 넘고 있

으며 소음공해도 적지 않은 것  
 으로 밝혀진 것.  
 이 보고서는 행락객뿐 아니  
 라 사찰 자체의 정화조, 하수  
 관리에도 허점이 있어 청정도  
 량의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자연림 조성, 간이정  
 화시설 설치, 쓰레기통 철거등  
 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일연대 기자)

**특어**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  
 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오래 살고 싶  
 은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이기 때문이다.  
 최근 ‘양심적이고 선한 사  
 람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  
 보다 더 오래 살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끌었다.  
 미국의 UC 리버사이드대 심  
 리학과 프리드먼 교수진은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못

심리학 저널에 발표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선종하  
 고 양심적이며 허영심없는  
 성격의 사람이 이기적이고 이  
 기적이며 남을 이용하는 성  
 격보다 조기사망할 확률이

변화추이를 살핀 ‘허먼 광성  
 주지’를 바탕으로 해 더욱  
 신뢰도가 높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재  
 미있는 보도가 있다. 김홍수  
 씨는 ‘존재할을 하면 건강해  
 을 만든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서 오래살라고 집착하면(壽  
 종相) 보상이 아니라고 경계  
 하셨다. 부처님은 더 많은 것  
 달음을 얻고자 아늑다라삼막  
 상보리심을 내리는 불자를  
 善男子 善女人이라 부르셨다.  
 무상 정등정각을 이루려는  
 선남자 선어인, 즉 보살은 착  
 할수 밖에 없다. 또 오래 살  
 려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  
 러나 일체 집착을 여인 선남  
 자 선어인은 프리드먼교수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연  
 히 장수할 것이다.

최근 ‘양심적이고 선한 사  
 람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  
 보다 더 오래 살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끌었다.  
 미국의 UC 리버사이드대 심  
 리학과 프리드먼 교수진은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못

## 선우도량 “종단 개혁 지속”결의 제 2기 출범...지난 16~17일 수련결사

지난해 조계종 개혁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선우도량  
 이 지속적인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며 제2기 출범의 뜻을  
 밝혔다.  
 선우도량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제  
 8회 수련결사’를 개최하고 승  
 가교육개회, 불교사상과 수행  
 본 정립, 깨달음의 공덕을 사  
 회와 대중의 삶에 회향한다는  
 제2기 출범의 결의를 다졌다.  
 법상, 한기스님의 발개로 사  
 학대 논평, 대표 토론자 3인의  
 토론으로 이어진 이번 수련결  
 사에서 선우도량은 제1기(90

년~94년)성과에 대해 ‘회합학  
 립,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  
 의 절치로 여겼다는 승가 수행  
 자를 배출하는 한편, 역경과  
 교재 편찬의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종단개혁의 견인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우도량은 개혁을  
 계속 추진할 대안세력 창출과  
 시대에 맞는 불교사상체계 정  
 립을 통한 사부대중의 요구에  
 맞는 수행관·수행방법 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개혁회의 평가와 종단  
 의 방향 모색에 대해 선우도량  
 은 “개혁회의가 개방적이면서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긍정적인 성례를 남긴 것은 의  
 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종도들의 자부하 열기  
 와 개혁의지를 승화시키지 못  
 한 점과 승가공동체 변화시킬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지 못했  
 것은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우도량은 지난해 조  
 계종 개혁불사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체활동의 정제  
 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 지속  
 적인 개혁활동은 물론 내실있  
 은 자체행사를 통한 위상강화  
 에도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대중과 호흡하는 전국순회법회 15면**

**한국가스공사를 아십니까?**

한국가스공사는 바로 여러분의 기정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중부권 가정에 천연가스 공급! 연간 매출액  
 1조 4천억 원! 이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의 어엿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청정연료의 시대를 연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10개  
 도시가스사를 통해 수도권 및 대전권 일원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데 이어 2000년, 전국 600여만 가정에 보다  
 깨끗하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한국가스공사는 보다 많은 국민이 천연가스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공기업인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한발자욱이라도 국민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도 산간오지를 헤쳐며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